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주요 이슈

☞ 2015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review In Seoul 2015) 성황리 개최

- '프리뷰 인 서울 2015' 전시회가 비즈니스 전시회로서 역할을 강화해 수출 확대와 내수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지난 9월 2일(수) 개막해 4일(금)까지 이어진 이번 전시회에는 304개사(해외업체 92개사)가 참가했으며, 전년대비 10.1% 증가한 11,735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 특히, 금년 전시회는 참가업체-바이어간 매칭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으며, 신소재, 트렌드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 한편, 개막식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시회가 우리나라 섬유패션 신소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자”라고 당부함

☞ 올 상반기 세계 교역액,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 무역협회 “15년 상반기 세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1~6월 세계 67개국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1.9%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만에 최대 하락폭($\Delta 22.6\%$)을 기록. 이는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교역 단가가 14.1% 하락하면서 전체 교역액이 감소한 데 기인. 국가별로는 중국이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1.0%)했지만 수입이 크게 감소($\Delta 15.5\%$)하면서 2위로 밀려났으며, 미국은 수출이 5.2% 감소했으나, 수입이 3.1% 줄어드는데 그쳐 1위를 기록.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Delta 8.1\%$)과 수입($\Delta 21.0\%$)이 모두 크게 감소함. 한편, 우리나라 수출은 5.2% 줄었으나 경쟁국에 비해 선전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세계 6위를 기록(작년 7위). 반면, 수입과 무역은 각 9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같은 실적을 보임

◆ 업계 동향

☞ 섬유패션 상장기업 상반기 영업실적

- 12월 결산 섬유패션 상장기업의 상반기 실적 발표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면방업체의 경우 전방, SG충남방직 등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일신방직, 경방 등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함. 화섬업체는 대부분 업체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효성, 티케이케미칼 등의 경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남. 영원무역, 한세실업, 신원 등 의류수출기업들은 전년에 이어 실적 호조세가 이어짐. 패션 기업들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냄. 국내 패션시장 불경기로 제일모직, LF,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대기업 패션부문의 영업이익도 감소세를 보임

☞ 패션대기업 브랜드 강화, 사업 다각화에 집중

- 패션대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브랜드를 정리하고, 온라인채널 강화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 제일모직은 후부, 데레쿠니 등에 이어 8월엔 캐주얼 브랜드 바이크리페어숍 사업을 철수하고, 빈폴, 갤럭시, 로가디스 등 기존 브랜드와 에잇세컨즈, 빈폴아웃도어 등 신규 성장 브랜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특히, SPA브랜드인 에잇세컨즈를 '20년까지 매출 10조원, 아시아 톱3 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 LF는 의류에 국한했던 사업영역을 액세서리, 생활용품까지 확장하고, 온라인 유통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패션 케이블채널인 동아TV를 인수함. 코오롱 Fnc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난 4월 컨테이너 쇼핑몰 커먼그라운드로 유통사업에 진출

☞ 전북도 탄소기업체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전북도는 지난 8월 27일(목) 탄소복합소재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산업부 공모과제로 선정된 이 사업은 2018년까지 3년간 국비 6억원, 도비 12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탄소복합섬유소재 기술개발,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함께 추진. 탄소복합소재산업은 탄소소재, 천연소재 등 다양한 섬유를 융복합해 소재와 제품의 고부가가치 수요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지만 도내 기업의 기술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 이에 따라 도는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복합섬유소재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

◆ 해외시장 동향

☞ '14년 미국 섬유산업 동향

- 미국노동부에 따르면, '14년 미국 섬유·의류산업 종사자수는 370천명으로, 섬유업체 117천명, 기타 섬유제품업체 114천명, 의류업체가 139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4년 NAFTA 체결, '95년~'05년 섬유교역 자유화 등으로 미국 섬유·의류업체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어, '14년 미국 섬유·의류산업 종사자수는 '90년대비 22.8% 수준으로 감소. 미국경제분석국에 따르면, '14년 미국 의류 소비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905억불로, 품목별로는 여성복 1,759억불, 남성복 955억불, 유아동복 191억불을 기록. 아울러, 미국상무부 섬유·의류국(OTEXA)에 따르면, '14년 미국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44억불, 수입은 2.6% 증가한 1,075억불을 기록

☞ 영국 스포츠의류 시장 '19년에 80억 파운드(125억불)에 달할 전망

- Key Note 연구소에 따르면, 애슬레저(Athleisure) 트렌드 영향으로 '19년 영국 스포츠의류 시장은 80억 파운드(125억불)에 달할 전망. 영국의 스포츠의류 시장규모는 '12년 5.3%, '13년 8.7%, '14년에는 9.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년 영국 스포츠의류 판매건수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2,820만벌, 판매 평균가격은 2.5% 증가한 18.6파운드를 기록. 영국 스포츠의류 시장규모 확대는 여성용 스포츠의류 판매 증가, 디자이너와 유명 스포츠 스타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 등에 기인. 특히, 나이키의 경우 여성 전용 스포츠의류 매장을 설립하는 등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 현재 매출의 1/5이 동 품목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비나텍스, 670만불 투자한 의류공장 준공 발표

- 베트남 국영섬유기업인 비나텍스는 8월 25일(화) 베트남 팜빈성 Cam Lien 산업단지공단에 670만불을 투자한 의류공장 준공을 시작했다고 발표. 동 의류공장은 연간 800만벌의 의류를 생산하여 미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될 예정. 금번 공장 증설은 비나텍스가 TPP 등 베트남이 추진중인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코자 '14년 발표한 2.1억불 규모의 팜빈성 섬유·의류산업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Ba Don 지역에 섬유화이버 및 의류공장, Quang Ninh지역에 의류공장을 준공할 계획임. 아울러, 비나텍스는 팜빈성과 섬유·의류산업 관련 시설 투자 MOU를 체결, 향후 면방직 R&D 센터, Quang Ninh 지역 섬유화이버 공장 준공, Bac Quan Hau 공단 제작·염색 연구소 건설 등에 투자할 계획

☞ 미얀마, 섬유·의류수출 5개년 전략 발표

- 미얀마 정부는 섬유·의류산업 발전을 위해 '섬유·의류산업의 환경 친화적인 수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비전과 함께 '2015~2019년 섬유·의류 수출전략'을 발표. 미얀마의 섬유, 의류 수출은 '03년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로 급감했으나, '12년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및 EU의 미얀마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기업의 경우 미얀마의 원부자재 공급 애로, 내수 기업의 생산 경험 및 기획 시스템 부족 등으로 현지 진출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현지 사정에 대한 정확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 경험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미얀마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15년 7월 섬유류 수출입 실적

- 7월 섬유류 수출은 직물류 수출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사류와 제품류 등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한 13억6천9백만불을 기록. 수입은 의류를 포함한 제품류 수입이 다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한 12억2천2백만불을 기록

구 분	수 출(단위 : 백만불, %)			수 입(단위 : 백만불, %)		
	'14년	'15.7월	'15.1~7월	'14년	'15.7월	'15.1~7월
섬유화이버	1,413(△1.5)	102(△24.3)	693(△17.3)	223(△4.1)	17(△12.6)	115(△9.9)
사류	1,644(△4.6)	123(△14.4)	869(△11.0)	2,091(△1.8)	171(△8.5)	1,141(△6.7)
직물류	9,262(△1.1)	818(△4.8)	5,041(△9.5)	1,866(4.2)	171(△3.9)	1,094(0.7)
제품류	3,617(5.5)	326(△7.1)	1,969(△6.9)	10,477(11.9)	863(△4.1)	5,336(1.9)
섬유류 계	15,936(△0.1)	1,369(△8.1)	8,573(△9.8)	14,658(8.4)	1,222(△4.8)	7,686(0.2)

☞ 산업부, '15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 매출은 식품(0.5%) 판매가 증가했으나, 가정생활(△5.5%), 가전문화(△4.2%), 의류(△2.9%) 등 비식품 매출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백화점은 의류, 잡화 매출이 하락했지만, 다양한 판촉행사 진행에 따른 생활가전, 해외유명브랜드 판매 증가로 전체 매출이 0.7% 증가함(잡화 △4.5%, 아동스포츠 2.8%, 해외유명브랜드 5.3%, 여성캐주얼 △1.5%, 여성정장 0.2%, 남성의류 △6.4%)

<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

구분	'14년	'14년						'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대형마트	△3.4	△4.6	3.2	△10.1	△0.9	△4.7	△3.8	△18.3	24.5	△6.5	0.0	0.5	△10.2	△1.8
백화점	△0.7	2.0	10.5	△6.3	△2.2	△6.5	△0.9	△11.0	6.6	△5.7	1.3	3.1	△11.9	0.7

☞ 통계청 '15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 통계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15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비율)은 71.6%로 전년동기대비 1.7p 하락함. 2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4,270,567원으로 2.9% 증가했지만, 가계소비지출은 2,194,305원으로 0.7% 증가에 그침. 품목별로는 식료품(2.0%), 주류·담배(19.8%), 주거·수도·광열(7.8%) 등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오락·문화(△4.4%), 교통(△4.4%), 교육(△1.6%) 등의 소비는 감소세를 보임. 한편, 2분기 의류·신발 부문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69,236원으로 3.4% 감소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 원자재 가격 동향

- ☞ 원면가격은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주대비 5.8% 떨어짐. '15/'16시즌 원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폴리에스터 가격 하락 영향으로 글로벌 원면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 화섬원료 가격도 유가 하락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함. 아시아 지역 설비 증설로 PTA 업계는 낮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은 향후 중국의 계절적 수요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섬유류 수출과 내수 판매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8/28	미국('15년 10월 인도분)	63.75	△5.8%	△0.4%	△1.3%
PTA(\$/MT)		CIF China	585	△4.1%	△8.6%	△17.6%
MEG(\$/MT)		(90 days credit term)	670	△6.9%	△18.3%	△26.8%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
-